

이란 협상시한 하루 연기한 트럼프 “불발시 다 날려버릴 것”

애초 4월6일 제시했다 7일로 변경...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 안해
닷새→열흘→하루...트럼프, 발전소 등 이란 인프라 공격 3번째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현지시간 7일로 연기하면서, 그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타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화요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었다.

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애초 예고했던 6일에서 7일로 하루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협상 시한을 오는 7일 저녁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 화요일(7일) 저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발전소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다리도 하나도 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 유예를 미 동부시간 기준 4월6일 오후 8시까지로 열흘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면서 이란 발전소 공격을 예고했다가 같은달 28일 닷새 동안 공격을 유예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이날까지 트럼프 대

통령은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을 3차례 연기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깊이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자신이 제시한 7일 시한 만료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타결 가능성과 관련해 “(합의)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그들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곳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란과는 결승선에 도달하는 일이 없다”고 말해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최종 합의 가능성에 회의적인 인식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며칠 전 양측이 간접 협상이 아닌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데 합의할 뻔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5일 뒤에 만나자고 하더라. 내가 왜 5일이냐 걸리는지 몰았다. 그들이 진지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다리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일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이란 북부를 연결하는 교량에 가해진 공격을 가리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빌어먹을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미친 놈들아,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비속어까지 사용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지난 1일 대국민 연설 등 최근 각종 입장 표명



이란 공습에 무너진 건물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북부 도시 하이파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된 주거용 건물 잔해 속에서 이스라엘 수색 및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 소방관들은 이날 이란 미사일에 맞아 무너진 하이파의 한 주거용 건물 잔해 속에서 실종된 3명을 수색했다. 군과 구조 당국에 따르면 7층 건물에 직격탄이 맞아 건물 일부가 파괴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AFP=연합뉴스

기회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봉쇄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하는 것은 해당 해협을 통해 석유를 대량 수입하는 나라들이 주로 책임질 일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격한 어조로 호르무즈 개방을 이란에 요구한 것은 호르무즈를

통한 에너지 도입량이 미미한 미국도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의 지상군 투입을 배제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합의를 할 것이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합의를 할 것”이라며 “그들이 똑똑하다면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호주 “한·일·싱가포르서 석유제품 정상공급 보장”

“아시아에 LNG 안정적 수출할 것”

호주가 주요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한국·일본·싱가포르로부터 석유제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고 호주 정부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맷 시슬스웨이트 호주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지난주 일본 장관을 만나 (석유제품) 공급 지속을 요청했다”면서 일본 측이 정상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는 확답을 줬다고 말했다.

또 한국·싱가포르 측과도 통화해 비슷한 보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2일 호주가 아시아에 대해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역할을 계속 수행할 테니 아시아 파트너 국가들도 호주에 대해 석유제품을 계속 공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우리는 우리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들이 기존 계약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상호주의 원칙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주는 세계 제2의 LNG 수출국이지만, 두곳 뿐인 자국 내 정유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부족해 연료 등 석유제품 대부분을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 EEFPA)에 따르면 호주는 연료 수입량의 약 4분의1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각국이 자국 내수 공급 확보를 위해 석유제품 수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호주에서도 연료 공급이 차질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달 중력권 진입 앞둔 ‘아르테미스 2호’...우주복 성능시험 수행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달 중력권 진입을 앞두고 우주복 성능 시험 임무를 시작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비행 5일 차를 맞은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오리온 승무원 생존 시스템’(OCSS)이라 불리는 주황색 우주복 시험에 나섰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OCSS는 유인 캡슐인 오리온 우주선 내에서 입는 우주복으로 발사와 지구 대기권 재진입, 달 인근의 고위험 임무, 비상 상황 등에 착용하게 된다.

우주복의 내구성과 내화성(耐火性), 통기성, 열 관리 기능도 개선됐고 장갑은 터치스크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S·M·L 등 기성복 같은 크기로 제작됐던 ‘우주왕복선’ 시절의 우주복과 달리 승무원별로 맞춤 제작됐고, 지퍼도 개선돼 보다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우주복은 우주선 내 기압이 줄어들 경우 최대 6일간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하고, 귀한 시 캡슐이 지구 바다에 착수한 이후 캡슐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승무원의 생존을 지원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우주복을 주황색으로 제작한 것도 이때 승무원이 바다에서 쉽게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다.

승무원들은 이날 중력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장시간 착용 시 우주복의 성능과 기동성이 어떠한지, 열 관리와 통신 시스템 등 지원이 적절한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우주복을 입고 좌석에 앉거나 우주선 내를 이동하고, 식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는지도 시험한다.

아르테미스 2호는 또 이날 목적이 달을 향한 궤도 수정 절차를 수행하고 지상 관제소에서 최종 달 도착 탐사 목표를 수신한 이후 달 중력권 진입을 준비한다.

달 중력권 진입은 미 동부 시간 기준 6일 오전

12시40분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日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냉각 설비 고장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2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용후 핵연료 냉각을 위한 저장조 냉각 펌프에서 고장 경보음이 울려 냉각 설비 가동이 중단됐다.

6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오후 경보음이 울린 뒤 현장 확인 작업에서 연기가 확인돼 펌프 가동을 정지시켰다.

1호기 저장조에는 사용후 핵연료 2천500여개가 보관돼있으며 냉각 중단 시점의 물 온도는 26.5도였다.

도쿄전력은 사내 규정상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관리상한선인 65도까지 온도가 오르려면 약 8일 정도 여유가 있어 즉각적인 안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